

# 19-20C초 중국어 12종 성경의 문체와 그 판본에 나타난 “성령(聖靈)” 어휘 유래 고찰\*

The study on the early 19-20th Century Chinese style of 12 bibles and their corresponding editions, and the origin of the term “Holy Spirit”

소은희 (Eun-Hee So)\*\*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12 editions of the Chinese Bible in the early 19th-20th century, the style of the Chinese Bible, and the origin of the word "Holy Spirit" as seen in the Acts 1: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In addition, particular focus is given to the exploration of when and how the word “Holy Spirit”, a Christian term not originally part of the Korean language tradition, was introduced into the Korean Bible and began to take root in Korean Christian culture.

The Christian term “Holy Spirit” can be found for the first time in the 1863 “Bridgeman Culberson Translation” Chinese Bible. The first Korean bibles, 『Jesushenggyojonseo』 and 『Hyeontohanhanseonggyeong』 were translated into Manchuria and Japan, respectively. “Holy Spirit” was first read in Korean by Korean translators and later became an indigenous vocabulary word deeply rooted in Korean Christian culture.

**Key words:** the early 19-20th Century, Chinese style of 12 bibles and their corresponding editions, the origin of the term “Holy Spirit”

---

\* 2022년 11월 18일 접수, 2023년 2월 7일 최종수정, 2월 9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후 수정, 보완된것임

\*\* 숙명여자대학교(Sookmyung Women's University) 중어중문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drrara@sookmyung.ac.kr

## 1. 들어가는 말

중국 당나라(618-908)때 景教<sup>1</sup>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중국어 성경의 번역은 이후 16-18C 예수회 선교사들의 중국어 성경 번역 시기를 거쳐, 19C-20C초 개신교 선교사들과 그들을 도왔던 많은 중국인 助手(조력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초기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된 중국어 성경은 처음에는 중국인 조력자들에 의해 수정·윤색되었으나, 20C에 들어서는 중국인 학자들에 의해 직접 번역되기도 하였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세계 다른 민족들의 공용어처럼, ‘표준중국어’도 한 민족의 내부에서 장기간 왕래 되었던 어떤 방언의 기초 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표준중국어’는 구어(口語)와 서면어(書面語)를 모두 포함한다. 구어(口語)란 입말체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구두 형식의 언어이고, 서면어(書面語)는 글말체로 문자로 기록해내는 서면 형식의 언어이다.

중국은 매우 일찍이 공통의 글말(서면어)이 있었다. 漢代 楊雄이 지은 『방언(方言)』에서 자주 거론되는 ‘통어(通語)’라는 말은 바로 전국적으로 통행 되었던 공통의 언어를 의미한다. 중국 고대의 서면어가 처음에는 당시의 구어(입말)에 기초하여 형성되었지만, 서면어(글말)로 고정되어 버린 이후에는 구어를 따라 함께 변화하지 않았다. 서면어는 점차 구어와 격차가 생기게 된 후, 전문적인 학습을 거치지 않고는 듣거나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서면어(文言文)으로 변해버렸다

이후 문언문과 구어가 완전히 나뉘어져 민간에서는 구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새로운 형식의 서면어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백화문(白話文)이다.” “백화문의 출현은 빠르게는 9세기 당말(唐末)에서 12,13세기 송(宋)·원(元)시대에 출현한 것으로”, “오늘날 ‘표준중국어’ 서면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백화문으로 저술된 작품들은 ‘속(俗)’된 저급한 문학으로 취급되었고, 문언문으로 쓰여진 서면어가 글말로서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백화문은 1919년 ‘5.4운동’ 이후에야 비로소 정식 서면어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北京大學中文系編, 김애영 외 역, 2007: 22-23).”

19C 중국으로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이러한 연유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과의 실제 생활을 통하여 문언체로 쓰여진 『委辦本譯本』(『代表本』이라고도 함.)과 같은 중국어 성경은 “학자층과 지식인들만이 보고 이해할 수 있었기에, 점차 너무 어렵지도 너무 속되지도 않은 쉬운 글말체 형식으로 교육받지 못한 백성들까지도 읽을 수 있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다(蔡錦圖, 2018: 241).”

1) 781년에 세워진 ‘大秦景教流行中國碑’의 내용에 따르면, 635년 시리아교회 알로펜 (阿羅本) 주교가 장안(長安)에 들어가 경교를 전파하고 왕립도서관을 지어 聖經을 번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본문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12종 중국어 성경은 AD 1800년 초반부터 1919년 和合本 중국어 官話 성경의 출판까지 약 100여년에 걸쳐 번역, 출판되었다. 이 12종 중국어 성경은 19C-20C초 중국어의 음운, 문법, 어휘방면에서 통·공시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남방과 북방, 화중(華中)지역 등 지역의 차이에 따라 중국어 변천의 역사와 발전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보석과도 같은 존재이다. 특히 문체면에서 어려운 고문체 형식의 문언문으로부터 지식인뿐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백성들까지 모두 읽을 수 있는 쉬운 백화문 및 官話 성경으로의 번역은 중국 언어 발달사(한어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중국 언어 발달사(한어사) 측면에서, 이러한 점들은 관료 중심의 어려운 문체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문체로 바꾸고자 했던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한 문체의 변경이 다양한 성경의 번역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쉬운 문체로의 성경 번역의 추세는 은 5.4운동 시기 백화문 운동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 된다. 또한 북경은 1153년 금(金)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 원(元)·명(明)·청(淸) 3대가 모두 이곳에 도읍을 정하여 800여년간 줄곧 전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어왔다. 1803년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에 의해 번역된 『古新聖經譯本』은 중국 최초의 북경 관화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한다.

중국어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점차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은 모두 다 와서 들으라 하신 들을 귀 있는 자(히8:11, 사55:1, 마5:3-4, 요1:39, 계2:7)를 향한 복음전파의 필요성에 따라, 19C-20C 초 12종 판본의 중국어 성경에 보이는 문체상에도 어려운 고문체인 문언체에서 쉬운 글말체로의 문체 변화가 나타남을 주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문장의 성경 말씀이 통·공시적 각도에서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달리 표기되어 있어, 1800년대 초부터 현대중국어에 이르기까지 200여년에 걸친 중국어 언어변천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한어사 연구에 그 가치를 더 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최초의 한국어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만주와 일본에서 각각 번역되었던 까닭에, 번역 과정에서 중국어 성경의 어휘가 한국어 성경으로 상당 부분 유입된 것도 살펴볼 수가 있다. 즉 한국인 역자가 중국어의 기록문자인 ‘한자(漢字)’를 한국어로 독음하는 가운데, 성령(聖靈), 성신(聖神), 십자가(十字架), 보혈(寶血), 구속(救贖), 속죄(贖罪), 구주(救主), 구세주(救世主), 세례(洗禮), 할례(割禮), 우슬초(牛膝草), 성도(聖徒), 성회(聖會), 율법(律法), 율례(律例), 도고(禱告), 기도(祈禱), 간구(懇求), 인자(人子), 칭의(稱義), 찬송(贊頌), 영생(永生), 복음(福音), 안식일(安息日), 유월절(逾越節), 화제(火祭), 소제(素祭), 번제(燔祭), 속죄제(贖罪祭), 속건제(贖愆祭), 만유(萬有), 보좌(寶座), 신원(伸冤) 등등 셀래야 셀 수 없는 많은 중국어 성경의 어휘들이 ‘한국어 성경 속에서 한국인의 기독교 용어’로 뿌리 내려지는 과정을 고찰할 수 있어서 그 연구의 가치를 더한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2017년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 교육전공 학생들은 중국어사(한어사)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어 성경의 문체와 각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세미의 『19세기-20세기 중국어 성경 4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고찰 -다니엘서(但以理書), 요한복음(約翰福音)을 중심으로-』(2018), 배슬기의 『19-20세기 중국어 성경 9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고찰 -전도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2019), 김찬미의 『18-20세기 중국어 성경 8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고찰 -마가복음, 로마서를 중심으로-』(2019), 이유진의 『19세기 중국어 관화 성경 3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고찰- 누가복음(路加福音)을 중심으로 -』(2020)의 석사 학위 논문들이 있다.

본 논문은 위 선행 연구의 기초위에 19-20C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을 저본으로, 중국어 성경의 문체와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 하신 중국어 성경 “성령(聖靈)”어휘의 유래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19-20C초 중국어 12종 성경 판본의 문체 변화에 대한 이유와 어휘발달사 측면에서 중국어 성경이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성교전서』와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두 성경은 각기 만주와 일본에서 번역되었는데, 당시 한글 성경의 번역자들이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삼았던 까닭에, 한자 “성령(聖靈)”이 처음 한글 번역자들에 의해 우리말로 독음 되었고, 이후 토착화되어 우리나라 말처럼 한국 기독교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어휘가 되었음을 밝히었다.

그간 한국 학계에서는, 존 로스(John Ross)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이응찬(李應贊) 등이 만주에서 번역한 한국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는 중국어 성경 『委辦本譯本(1854)』(『代表本』이라고도 함.)을 주된 저본으로 삼아 번역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가 『委辦本譯本(1854)』을 주된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성령(聖靈)”은 성신(聖神)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에 의하면 Picture 1과 같이 “성령”으로 표기되었음이 고찰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란 어휘는 1863년 『裨治文、克陞存譯本(브리지만 .컬버슨역본)』 중국어 성경에서 그 처음 유래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먼저 논지의 전개를 위해, 중국어 성경 번역 문체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고찰을 통하여 우리 언어 전통에 없던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라는 어휘가 언제, 어떻게 한글성경에 유입되어,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II. 중국어 성경의 문체 변화

### 중국어 성경의 문체

19C-20C초 중국어 12종 성경 번역의 문체는 크게 3종류로 문언체(文言體)와 천문리체(淺文理體), 관화체(官話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종 판본의 성격과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

#### 1.1 ‘深文理’ 譯本 (High Wenli Version)

중국어 성경의 ‘深文理’ 譯本이란 ‘文言文’ 형식으로 쓰여진 ‘文言譯本’을 말한다. ‘文理’ 체란 中國의 四書三經 등과 같은 중국 고전의 문체로 ‘經書體’라고도 하며, 쉬운 문리와 구별하여 ‘深文理體’라고도 한다. 『馬禮遜. 米憐譯本(모리슨. 밀른 역본)』(MM,1813), 『馬殊曼. 拉撒譯本(마슈만. 라싸역본)』(ML,1822), 『郭實臘譯本(귀츨라프역본)』(GL,1839), 『委辦本譯本』(『代表本』이라고도 함)(DB,1854), 『裨治文. 克陞存譯本(브리즈만. 컬버슨역본)』(BC,1863) 등이 文言文, 즉 ‘深文理’에 해당하는 판본들이다.

#### 1.2 ‘淺文理’ 譯本 (Easy Wenli Version)

‘淺文理’ 譯本이란 아주 고상한 수준의 고전 문체 즉 문언 문체와 통속적인 입말 문체 사이의 문체를 말한다. 深文理 보다는 통속적인 색채를 띠는 문체로 문언문과 구어 사이에 속하는 ‘半文半白’의 文體에 속한다.

당시 중국인들은 서면어를 ‘文理 (Wen -li)’ 또는 ‘文言’이라고 칭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문언체로 쓰여진 『委辦本譯本』(『代表本』)과 같은 문언체 성경은 학자층과 지식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고, 교육받지 못한 백성들은 閱讀할 수가 없었다. 이에 선교사들은 쉬운 글말체로 너무 어렵지도 너무 속되지 않은 쉬운 글말체 형식으로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다. 선교사들은 기존의 文言과 현대 구어에 가까운 문체를 구별하기 위해 ‘深文理(High Wen-li)’와 ‘淺文理 (Easy Wen-li)’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작업을 하였다. 사실 이러한 용어들은 서방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어휘로 중국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다.

淺文理 (Easy Wen-li) 聖經 譯本에는 楊格非(Griffth John, 1831-1912)의 『淺文理新約全書』(1886)와 施約瑟(Samuel Isaac Joseph Schereschewsky, 1831-1906)의 『施約瑟淺文理譯本』(1902) 등이 있다.

『North China Herald News』(1887. 5. 13일자, 8쪽)의 논평에 의하면, 楊格非(Griffth John)의 『淺

『文理新約全書』(1886)는 학자로부터 농민까지 각 계층의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논평문은 아래와 같다.

“We are led to believe that the permanent Standard Chinese Version must steer a middle course between the extremes of the high classical and low colloquial styles. It must carry with it an air of authority and intelligibility; and must call forth the respect, and be suited to the capacity, of the average scholar. … It must not contain the colloquial of any district, but must be in the easy classical, or current style, known all over the Empire … But time will not permit us to say all that we think the standard translation ought to be; suffice it to say that we consider Mr. John’s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in its amended form, to be a most praiseworthy effort in the right direction …”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읽혀질 표준 중국어 버전은 아주 고상한 수준의 고전과 통속적인 구어의 중간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권위가 느껴지고 경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체로 학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구어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도 충분히 쉬우면서 전통적이고, 현재의 언어 방식을 사용하여 중국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우리는 현재 아직 올바른 번역의 기준을 정의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그리피스 존의 신약성서 번역은 번역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높이 평가할만하다…” (김찬미, 2019: 16-17, 재인용).

위의 ‘North China Herald News’는 지식인의 공유물이었던 문언문보다 지식인이 아닌 사람까지도 쉽게 閱讀할 수 있도록 쉬운 글말체로 쓰여진 ‘淺文理’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논평하고 있다. 즉 “아주 고상한 수준의 고전과 통속적인 구어의 중간 수준”의 문체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楊格非(Griffith John) 그리피스 존의 요한복음 3:3절의 말씀을 천문리 판본과 관화 판본으로 비교해 보겠다.

(1) GJ(1886)3:3 耶穌曰,我誠告爾,人若未得重生,不能見上帝之國,(천문리 판본)<sup>2</sup>

2) “在1890年代之前, 楊格非(Griffith John) 是淺文言譯本的主要譯者。1885年, 楊格非出版了淺文言新約全書(1889年修訂重印)、舊約的《詩篇》和《箴言》(1886年)、《創世紀》和《出埃及記》(1889年)、《利未記》至《申命記》(1903年)、直至《雅歌》爲止的舊約(1905年), 其中的《詩篇》和《箴言》也是多次再版的。” (蔡錦圖, 『聖經在中國』, 漢語基督教文化研究所, 2018, 253.)

(2) GJ(1892)3:3 耶穌說, 我實在告訴你, 人若沒有重生, 不能見上帝的國.(관화 판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문 (1)은 ‘淺文理’ 판본으로 “말하다”라는 어휘를 문언의 어체인 “曰”로 표기하였고 “너”는 “爾”로, “~의”라는 의미를 “之”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예문 (2)는 예문 (1)의 고문체로 쓰여진 문장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화체로 대체시킨 것을 고찰할 수 있다. 예문 (2)에서는 그리피스 존이 “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曰”을 입말체인 “說”로 바꾸었고 “진실로”라는 부사를 고문체 “實”보다 입말체인 “實在”로. “너”라는 의미의 고문체 “爾”을 현대 중국어 입말체 “你”로, “알리다”라는 의미의 “告”를 쌍음절화된 “告訴”로 바꾸었으며, “~ 중생을 얻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未得重生”을 “沒有重生”이라는 입말체 어투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언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인 “上帝之國”을 입말체 “上帝的國”로 바꾸었다.

심문리체인 요한복음『委辦本』(『代表本』(DB 1854) 3:3 “耶穌曰、我誠告爾、人非更生、不能見上帝國”과 비교해 보면, 천문리체 그리피스 존 판본 “耶穌曰, 我誠告爾, 人若未得重生, 不能見上帝之國”에서는 “만약”이라는 의미의 연결사 “若”와 “~의”라는 의미의 조사 “之”를 추가시켜 문장의 의미가 “만약 사람이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로 번역되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으며, 심문리체보다 청자나 독자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글말체 형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3 ‘官話’ 譯本(Mandarin Version)

중국은 14세기 후대에 이르자 ‘관화(官話)’라고 불리던 구어가 북방어의 기반 위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관화(官話)’는 明清 시대에 사용된 용어로, 중화민국에서는 ‘國語’로 명명하였으며, 1956년에는 “보통화(普通話)”로 개명되었다

‘관화(官話)’는 글자의 의미대로 관리 계층이 전용하던 관청의 雅言(고상한 언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전 민족이 공통으로 사용하였던 언어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北京大學中文系編, 김애영 외 역, 2007: 23).

중국 청나라는 18세기 말부터 내부의 여러 반란과 19세기 초부터 침투한 서양세력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결국 청나라는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1842년 굴욕적인 南京조약을 맺고 영국에게 많은 이권을 넘겨주어야 했지만, 이 南京조약은 18세기 초부터 가톨릭교 禁壓政策으로 중국을 떠났던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을 향하여 복음의 깃발을

드는 계기가 되었다.

개항 이후 아편 무역의 증가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민생의 피폐함, 각종 종교적 비밀결사들의 반란 등으로 1840년대 말 중국사회의 혼란은 극에 달하였다. 이렇듯 청나라 말기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민족이 되기에 적합한 현실을 접하게 된 것이다. 즉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는 토양 밭이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각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을 중국 도착 후, 점차 생활 속에서 중국인의 글말과 입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입말체에 기반을 둔 글말체로의 중국어 성경 번역이 필요함에 대해 고심하였다. 1860년 북경조약이 체결된 후 외국인에 대해 일부 지역만 개방하던 중국이 전면개방을 하게 되자, 선교사들은 중국 전역에서 통용 가능한 언어 형식으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당시 사용이 가장 편리하고 계급 간 소통이 가장 효과적인 官話 성경의 번역을 착수하였다.

당시 ‘官話’는 옹정제(雍正帝, 1723-1735)가 앞서 민(閩)·광(廣) 두 성에 정음서원(正音書院)을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官話 교육을 시킬 만큼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sup>3)</sup>

즉 官話는 당시 사용이 가장 편리하고, 계급 간 소통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따라서 1860년대 이후, 점점 본격적인 官話 聖經 번역작업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면서 번역작업이 자연스럽게 착수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교재도 송나라 원나라 이후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단지 문화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무역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도 중국어 회화를 잘할 필요가 있어서 어려운 전통적인 문언문 위주의 교재는 더이상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張希平, 이미경 역, 2016: 96)과도 일맥상통한다.

현재 중국의 수도 북경은 1153년에 금(金)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부터 원(元)·명(明)·청(淸) 3대가 모두 이곳에 도읍을 정하여 800여년간 줄곧 전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북경어는 官話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언이 되었고, ‘표준 중국어(普通話)’는 이 북경음을 표준 삼아 기초가 정해졌다.

중국은 20세기 초, 특히 1919년 5·4운동 시기에 민족·민주·혁명운동이 고양되어, 사회적 수요

3) 『利瑪竇中國札記·第五章』: “除了不同省份的各種方言, 也就是鄉音之外, 還有一種整個帝國通用的口語, 被稱為官話(Quonhoa), 是民用和法庭用的官方語言。這種國語的產生可能是由於這一事實, 即所有的行政長官都不是他們所管轄的那個省份的人(我們下面就要解釋), 爲了使他們不必學會那個省份的方言, 就使用了這種通用的語言來處理政府的事務。官話現在在受過教育的階級當中很流行, 且在外省人和他們所要訪問的那個省份的居民之間使用。懂得這種通用的語言, 我們耶穌會的會友就的確沒有必要再去學他們工作所在的那個省份的方言了。各省的方言在上流社會是不說的, 雖然有教養的人在他們的本鄉可能說方言以示親熱, 或者在外省也因鄉土觀念而說鄉音。這種官方的國語用得很普遍, 就連婦孺也都聽得”。

위와 같이 명나라 말기 마테오리치도《利瑪竇中國札記》에서 官話는 이미 민간과 법정에서 사용되는 관방의 말로, 현재 교육을 받은 계급층에서 그 사용이 매우 유행하며, 외지인이 방문지의 주민과 이것으로 소통하며, 이 관방 국어의 사용은 매우 보편화 되어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도 모두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에 따라 白話文이 마침내 文言文을 대체하여 정식의 書面語가 되었다. 이런 백화문 운동은 문언문의 지위를 철저하게 흔든 동시에 “國語運動”을 불러일으켜 “國語”라는 명칭이 “官話”를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지식인들 가운데 官話는 “너무 속(俗)되서 사람들의 중시를 받지 못하며 고상한 지위에 오를 수 없는(不登大雅之堂)” 언어로 치부되어, 중국어 성경번역자들에게는 문인과 지식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만한 새로운 문체로의 성경 번역이 필요했다. 이것이 『施約瑟淺文理譯本』(1902)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張利偉, 1994: 42)

대표적인 ‘官話’譯本에는 『南京官話譯本』, 『北京官話譯本』, 『華中官話譯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山東話, 天津話, 上海話, 寧波話, 蘇州話, 福州話, 客家話, 廣州話 등의 각종 방언 역본이 있다.

위의 官話譯本중 『南京官話譯本』은 『代表本(1854)』의 문언체 신약 성경을 南京官話(Nanking Mandarin)로 重譯한 것으로, 미드허스트(麥都思, W. H. Medhurst, 1796-1857)와 스트로나크(施敦力, J. Stronach, 1800-?)의 감독하에 한 중국인에 의해 번역되었다. 1854년 상해에서 『馬太福音』이 처음 출판되었고, 이후 1857년 신약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다만 이 역본은 중국 내지 교회에서만 제공, 사용되었다(蔡錦圖, 2018: 423-426).

또한 『北京官話譯本』은 각기 다른 교단에서 온 J. S. Burdon, J. Edkins, S. J. Shereschewsky, H. Blodget, W. A. P. Martin의 5명의 선교사들이 『南京官話譯本』을 참고하여 번역한 역본이다. 이 성경은 현대중국어 입말과 가장 근접한 문체인 北京官話로 기록되어 당시 중국인들에게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았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北京官話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 1.4 중국어 문언체(文言體), 천문리체(淺文理體), 관화체(官話體)성경 문체 비교

다음은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삽나이까”의 말씀을 19C-20C初 중국어 성경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가 북경관화로 쓴 古新聖經譯本(LP,1803), 馬禮遜、米憐譯本(MM,1813), 馬殊曼、拉撒譯本(ML,1822), 郭實臘譯本(GL,1839), 委辦本譯本(DB,1854), 麥都思南京官話譯本(NJ,1857), 裨治文、克陞存譯本(BC,1863), 北京官話譯本(BJ,1872), 楊格非淺文理譯本(GJ,1886), 楊格非官話譯本(GJ,1892), 施約瑟淺文理譯本(SS,1902), 和合本官話譯本(HH,1919)을 저본으로, 심문리 역본과 천문리 역본, 남경관화, 북경관화, 화중관화 역본의 판본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 예문은 아래와 같다.

(1)深文理譯本

- ① MM(1813)3:4 尼可氏母謂之曰、人既老何得再生、其可再入厥母之腹以再得生乎。
- ② ML(1822)3:4 尼可氏母問之曰、人既老何得再生、豈可再入厥母之腹以再得生乎、
- ③ DB(1854)3:4 尼哥底母曰、人既老、何得更生、豈重入母腹而生乎、
- ④ GL(1839)3:4 尼哥底母曰、人既老、何得重生乎。豈能再入母胎、得生乎。
- ⑤ BC(1863)3:4 尼哥底母謂之曰、人既老何得更生、豈重入母腹而生乎。

(2)淺文理譯本

- ⑥ GJ(1886)3:4 尼哥底母曰、人既老、何得重生、豈能再入母腹而生乎?
- ⑦ SS(1902)3:4 尼哥底母曰、人既老、何能重生、豈能再入母腹而生乎?

(3)官話譯本

1)南京官話譯本

- ⑧ NJ(1857)3:4 尼哥底母道人既老了、怎得重生、豈能再進母親的肚子裡生出來呢。

2)北京官話譯本

- ⑨ LP(1803)3:4 尼各得睦說：老人怎得復生呢？豈能再入母腹又生麼？
- ⑩ BJ(1872)3:4 尼哥底母說、人已經老了、如何能重生、豈能再進母親腹中生出來呢。

3)『華中官話譯本』

- ⑪ GJ(1892)3:4 尼哥底母說、人既老了、怎得重生、豈能再進母親腹中生出來呢、

4)『和合本官話譯本』

- ⑫ HH(1919)3:4 尼哥底母說：「人已經老了、如何能重生呢？豈能再進母腹生出來麼？」

위의 중국어 성경 요한복음 3장 4절의 예문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언어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문미에 오는 의문 어기사가 예문 ①,②,③,④,⑤,⑥,⑦과 같이 고문체인“乎”쓰인 반면, 관화역본에서는『古新聖經』과 『和合本官話譯本』이 예문 ⑨,⑫에서 “麼”로 쓰인 것 외에 현대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문 어기사 “呢”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 ⑧,⑩,⑪과 같다.

둘째,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어찌”라는 의문사가 고문체인 “何” 혹은 “曩”로 쓰였지만, 관화역본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怎”、“如何”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예문 ⑧,⑨,⑩,⑪,⑫과 같다.

셋째,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태어나다”라는 의미의 동사 고문체인 “生”을 썼지만, 관화역본에서는 동사 “生”에 그 “生”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보어 “出來”를 부가하여 “엄마 뱃속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왔음”을 표현해 내고자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위의 예문 ⑧,⑩,⑪,⑫와 같다.

넷째,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이미”라는 부사가 고문체인 “既”로 쓰였으나 북경관화역본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이미”라는 의미의 어휘인 “已經”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 ⑩과 같다.

다섯째, 심문리 역본인 馬禮遜、米憐譯本(MM,1813) 馬殊曼、拉撒譯本(ML,1822)에서는 “厥母之腹”(그의 어머니의 배)라는 표현이 천문리체에서는 “그의”라는 의미의 3인칭 대명사 소유격 “厥”와 “~의”라는 의미인 조사 “之”가 보이지 않으며, 천문리 그리피스 역본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能”이 추가되어 “豈能再入母腹而生乎?”(어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장 번역이 더욱 쉽게 이해되고 그 의미가 한층 더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어휘사용 측면에서는 문언역본(심문리, 천문리역본)들은 “어미 뱃속에 들어가다”라는 말을 문언체로 “入母腹”라고 하였으나, 관화역본에서는 “進母腹中”으로 표현하였다. “들어가다”는 의미의 어휘인 고문체 “入”자가 현대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進”로 대체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南京官話譯本』은 “進母親的肚子裡”(어머니의 뱃 속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문형을 사용하여, 현대중국어 구조조사 “~의”라는 의미인 “的”와 “~의 안”이라는 의미의 방위사 “裡”의 사용으로 그 언어 표현 방식이 현대중국어 입말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가 북경관화로 쓴 古新聖經譯本(LP,1803)에서는 기타 역본에서 “人既老了(사람이 늙으면)”이라는 표현을 명사화시켜 “老人”이라 번역하였음도 살펴볼 수 있다.

### III. 19-20C 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에 나타난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 어휘 유래

#### 1.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에 보이는 “성령(聖靈)” 어휘 고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딤후 3:16, 출17:14)인 성경에 의하면, “성령(聖靈)”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골1:13)”,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요5:24)고 하시는 근거가 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며(요15:26),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롬8:16)

다음은 사도행전 1:8의 말씀을 19-20C 초 중국어 성경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 古新聖經譯本(LP,1803), 馬禮遜、米憐譯本(MM,1813), 馬殊曼、拉撒譯本(ML,1822), 郭實臘譯本(GL,1839), 委辦本譯本(代表本이라고도함)(DB, 1854), 麥都思南京官話譯本(NJ,1857), 裨治文、克陛存譯本(BC,1863), 北京官話譯本(BJ,1872), 楊格非淺文理譯本(GJ,1886), 楊格非官話譯本(GJ,1892), 施約瑟淺文理譯本(SS,1902), 和合本官話譯本(HH,1919) 12종 판본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LP(1803)1:8 但**聖神**降臨在你們上, 賦他恩與你們, 你們纔(纔)從日露撒冷、如德(德)亞、撒瑪里亞等處到地兩頭証見我。」
2. MM(1813)1:8 惟汝將受上臨汝**聖風**之德、而汝爲吾証于耶路撒冷、與如氏亞諸方、于撒馬利亞、至地末之境也。
3. ML(1822)1:8 惟汝將受德于**聖風**臨汝後, 而汝則爲吾證于耶路撒冷。及如氏亞諸方。于沙麻利亞。至地末之境也。
4. GL(1839)1:8 惟**聖神**既臨、爾將領德、爲我供證、在耶路撒冷、猶太、撒馬哩亞、諸方、至於地極矣。
5. DB(1854)1:8 惟**聖神**臨時、爾則有才、且爲我作證於耶路撒冷、舉猶太、撒馬利亞、以至地極、
6. NJ(1857)1:8 但**聖神**降臨的時候, 你們將得著才能, 而且替我作見證, 在耶路撒冷和猶太與撒馬利亞並到地的極處
7. BC(1863)1:8 但**聖靈**臨爾、爾將受能、爲我作證於耶路撒冷、徧猶太、撒馬利亞、以至地極。

8. BJ(1872)1:8 聖靈臨在你們身上、你們就必得著能力、並且在耶路撒冷、猶太全地、撒馬利亞、以及天下極遠的地方、爲我作見證。
9. GJ(1886)1:8 惟聖神臨爾時、爾則必得能力、且必爲我作證於耶路撒冷、猶太全地、撒馬利亞以至地極 也。
10. GJ(1892)1:8 惟聖神降臨在你們身上、你們就必得著能力、並且必爲我作見證、在耶路撒冷、猶太全地、撒馬利亞、以至地極。
11. SS(1902)1:8 惟聖神臨爾後、爾將受能力、爲我作證於耶路撒冷、猶太全地、撒瑪利亞、以至地極、
12. HH(1919)1:8 但聖靈降臨在你們身上，你們就必得著能力，並要在耶路撒冷、猶太全地，和撒馬利亞，直到地極，作我的見證。」

위의 내용을 근거하여, 19-20C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에 나타난 사도행전 1:8절에 보이는 “聖靈”이라는 어휘를 판본별로 분류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Changes in the expressions of “the Holy Spirit”

聖風	聖神	聖靈
馬礼遜、米怜譯本(MM,1813), 馬殊曼、拉撒譯本(ML,1822),	賀清泰古新聖經譯本 (LP, 1803) 郭實腊譯本 (GL, 1839) 委辦本譯本 (代表本) (DB, 1854), 麥都思南京官話譯本 (NJ, 1857) 楊格非淺文理譯本 (GJ, 1886), 楊格非官話譯本 (GJ, 1892), 施約瑟淺文理譯本 (SS, 1902)	裨治文、克陞存譯(BC, 1863) 北京官話譯本(BJ, 1872), 和合本官話譯本(HH, 191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C 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의 “성령(聖靈)”이라는 어휘는 1813년 Robert Morrison과 William Milne의 馬礼遜、米怜譯本 과 1822년 Joshua Marshman과 Joannes Lassar의 馬殊曼、拉撒譯本에는 “聖

風”으로 표기되어 있고,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에 의해 번역된 古新聖經譯本<sup>4</sup>과 1839년 번역된 Charles Gutzlaff의 郭實腊譯本, 1854년 委辦本譯本(代表本), 1857년 W.H Medhurst와 J. Stronach의 南京官話譯本<sup>5</sup>, 1886년 Griffith John의 楊格非淺文理譯本과 1892년 楊格非官話譯本, 1902년 S. J. Shereschewsky의 施約瑟淺文理譯本은 “성신(聖神)”으로, 1863년의 Elijah C. Bridgman과 Michael S. Culbertson의 裨治文、克陞存譯本, 1872년 北京官話譯本, 1919년 和合本官話譯本에는 “성령(聖靈)”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813년 馬禮遜·米恰譯本과 1822년 馬殊曼·拉撒譯본이 “聖風”으로 표기된 까닭은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천주교 파리 외방 선교회 장 바세(J. Basset, 1662-1707) 성경을 필사하여 중국어 성경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장 바세 성경에 “성령(聖靈)”은 “聖風”으로 번역되어 있다.

委辦本譯本(代表本)(DB, 1854)은 역경 과정에서 중국인 학자 王韜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문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초기 한국어 성경 번역의 주요 참고 저본이 되었다. 委辦本譯本(代表本)(DB, 1854)의 신약성경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교과를 초월하여 번역해 낸 성경이다. 1850년 8월 1일 상하이, 닝포, 아모이, 광둥과 홍콩을 대표하는 위원회 (the committee of Delegates) 소속 미국 회중선교부의 분(J. Boone), 런던선교회의 미드허스트(W. H. Medhurst)와 밀른(W. C. Milne), 스트로낙(J. Stronach), 미국공리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의 브리지만(E. C. Bridgeman) 선교사가 중국어 신약개정 작업을 위해 상하이에 모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오래지 않아 인사변동과 하나님을 上帝로 번역할 것인지 神으로 번역할 것인지 등의 번역상의 문체와 번역 원칙에 대한 이견으로 런던선교회의 미드허스트(W. H. Medhurst)와 밀른(W. C. Milne), 스트로낙(J. Stronach)이 ‘대표역본위원회’를 탈퇴하고 ‘중국어 구약성서 번역위원회’를 결성하였다.

Table 1에 근거하면, 1863년 브리지만·컬버슨 역본(裨治文、克陞存譯本)부터 “성령”을 “聖風”이나 “聖神”으로 표기하지 않고 “성령(聖靈)”으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12종 판본 중 賀清泰(Louis Antoine de Poirot) 《古新聖經》(LP, 1803)의 4복음서 중 《北京官話譯本 聖徒瑪竇紀的萬日畧》第二十七篇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져 있다. 『別兵說：勿如此，等，若厄里亞斯來救他！耶穌又號一聲，聖靈離了肉身。』(다른 병사가 가로되 이같이 하지 말아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기다리자 예수께서 다시 한번 소리지르시고 성령이 떠나가셨다)(마27:49-50) 이와 같이, 다른 복음서에는 보이지 않는 마태복음 제 27편 본문에는 “聖靈”이라는 어휘가 1번 출현하며, 주석에 모두 4번 출현(26장 주석 15번 1번과 27장 주석 45번에 3번)한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어휘가 “πνευμα”(프뉴마, 영)로 번역되어 있으며, 예수님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성령”을 말한다. 중국어 성경 和合本官話譯本(HH, 1919)에는 “聖靈”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氣”로 표기되어 있으며, 나머지 중국어 성경 11개 역본도 “氣, 命, 魂”으로 번역되었다. 한국어 성경은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어 여기서는 토론의 범주로 삼지 않았다.

5) 『南京官話譯本』은 W. H Medhurst와 J. Stronach의 감독하에 한 중국인에 의해 南京官話로 번역되었다. 일반적으로 Medhurst(麥都思)의 『南京官話譯本』으로 칭한다.

다음은 우리 언어 전통에 없던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라는 어휘가 언제, 어떻게 한글성경에 유입되어,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중국어 성경이 초기 한글성경『예수성교전서』와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에 미친 영향

1874년 만주 봉황성 고려문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영국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는 당시 조선 의주 출신 세례자 이응찬(李應贊)과의 인연으로 조선말을 배워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와 이응찬(李應贊) 등과 함께 1886년 초기 한국어 신약성경 『예수성교전서』를 완역하였다. 1879년 4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번역 초고가 완성되었고, 1882년 봉천에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나왔다. 이렇게 滿洲에서 인쇄된 성경들은 백홍준(白鴻俊), 서상륜(徐相崙), 최성균 같은 매서인(賣書人, “책을 파는 사람”의 중국어 표기)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었다. 초기 한글성경『예수성교전서』는 번역시 중국어 성경『委辦本譯本((代表本이라고도함)(DB, 1854)』을 주된 저본으로 삼았다고 한다(이환진, 1987: 11-12 ; 이만열, 1993: 49 ; 히로다카시, 2005: 46-49 ; 서수량, 2011: 140).<sup>6</sup>

한편 1884년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이수정(李樹廷)은 중국어 성경 『브리지만.컬버슨역(裨治文、克陸存譯本)(1863년)』을 저본으로, 브리지만과 컬버슨이 번역한 중국어 성경 본문에 이두식 토를 붙이는 형식으로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 『新約聖書 馬太傳』, 『新約聖書 馬可傳』, 『新約聖書 路加傳』, 『新約聖書 約翰傳』, 『新約聖書 使徒行傳』을 편찬하였다. 이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은 중국어 본문을 그대로 두고 한글 토를 붙인 것이어서, 지식인들이 읽을 수 있는 번역이었다. 이 성경은 1885년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 들어왔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그간 한국 학계에서 존 로스(John Ross)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이응찬(李應贊)등이 만주에서 번역한 한국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가 중국어 성경 『委辦本譯本』(『代表本(1854)』이라고도 함)을 주된 저본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Table 1에서 보이듯 “성령(聖靈)”은 “성신(聖神)”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래 Picture 1과 같이 “성령”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로스 역의 저본 문제에 대해 히로다카시는 John Ross의 <The christian Dawn in Korea The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Korea, 1881>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나의 성경반에서 먼저 한국인 번역자들은 나와 함께 한문 성서를 읽은 후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그것을 다시 헬라어 원문과 대조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원문에 가깝게 하였다.” 즉 매킨타이어의 증언을 근거로, 로스역의 저본은 실질적으로 헬라어 원문이라기보다는 한문 성서였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表紙에는 “ST.Luke, 1882. First edition in Korean Translated from the Chinese Version by John Ross of the U.P. Church of Scotland, with the help of Koreans”라고 명시되어 “한국인들의 도움을 얻어 중국성서로부터 번역하였다”고 적혀있다.



Picture 1. Korean translation of “Holy Spirit” in *Yesu Syeonggyo Jyeonseo*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이는 이 “성령(聖靈)”이라는 어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63년 중국어 성경 브리지만. 컬버슨 역본(裨治文、克陞存譯本)부터 “성령(聖靈)”으로 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번역본과는 달리, 브리지만과 컬버슨이 왜 “성령(聖靈)”으로 번역하였는지는 중국어 성경의 문체 형식이나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과로서의 공통적인 특징을 묶어 설명하기에는 통일성을 찾기 어렵다. 다만 개신교 미국공리회 선교사인 브리지만(Elijah C. Bridgman, 1801-1861)은 “중국어 성경『委辦本譯本』(『代表本』이라고도 함.)의 번역 원칙에 이견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장로회 선교사 컬버슨(Michael S. Culbertson, 1819-1862)과 성경을 다시 공동 번역하였다(蔡錦圖, 2018: 213).”고 전한다. 1851년부터 시작된 개정작업은 1859년 신약이 완성되었고, 구약은 1861-1863년에 출판되었다. 1861년 11월에 브리지만이 사망했고, 컬버슨은 1862년 8월에 사망했다. 안타깝게도 일본 성경 번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브리지만. 컬버슨 역본(裨治文、克陞存譯本)』의 공동 번역자인 이 두 선교사는 정식 버전이 출판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1858년, 일본이 개항하자 많은 개신교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갔다. 미국 장로회 선교사 헵번



(James C. Hepburn, 1815-1911)과 중국어 성경『委辦本譯本』의 역경 작업에 일찍이 참여한 브라운(Samuel R. Brown, 1810-1880) 등의 선교사들은 일본어 성경 번역작업에도 참여하였는데, 그들은 평소 이 브리지만. 켈버슨 중국어 문리체 역본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중국어 성경은 일본 성경 번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일본에서 교회 언어로 자리 잡을 만큼 언어, 문화적 각도에서, 특히 어휘방면에서 일본의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蔡錦圖, 2018: 213-214).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이수정(李樹廷)도 1884년 중국어 성경『브리지만. 켈버슨 역본(裨治文、克陞存譯本, 1863년)』을 저본으로, 중국어 성경 본문에 이두식 토를 단『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을 편찬하였고, 이후 이 성경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 에 의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영어 성경도 “성령”이라는 어휘는 각종 판본에 따라 다음과 같이 “the Holy Ghost” 혹은 “the Holy Spirit”로 표기되어 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왕국의 국왕 제임스 1세의 명으로 1604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1611년 번역을 마친 영어 성경 KJV(King James Version)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이라는 어휘를 “the Holy Ghost”로 표기하였다. 그 예문은 아래와 같다.

#### KJV(King James Version)

“But ye shall receive power,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aea, and in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Act 1:8)

1978년 여러 개신교 교파 출신 복음주의 성향의 목회자,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과 의역을 절충한 번역이며, 현대 영어 번역 성경 중 가장 인기가 있는 NIV(New International Version)는 “성령”을 “the Holy Spirit”로 아래와 같이 표기하였다.

####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 1:8)

지역본인 영어 성경 NASB(New American Standard Bible)도 “성령”을 “the Holy Spirit”로 표기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 NASB(New American Standard Bible)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 IV. 나오는 말

본 논문은 19C-20C初 대표적인 중국어 12종 성경 賀清泰 (Louis Antoine de Poirot)古新聖經譯本(LP, 1803), Robert Morrison과 William Milne의 馬禮遜、米憐譯本(MM, 1813), Joshua Marshman과 Joannes Lassar의 馬殊曼、拉撒譯本(ML, 1822), Charles Gutzlaff의 郭實臘譯本(GL, 1839), 委辦本譯本(代表本이라고도함)(DB, 1854), W. H. Medhurst와 J. Stronach의 麥都思、施敦力南京官話譯本(NJ, 1857), Elijah C. Bridgman과 Michael S. Culbertson의 裨治文、克陞存譯本(BC, 1863), 北京官話譯本(BJ, 1872), Griff John의 楊格非淺文理譯本(GJ, 1886), 楊格非官話譯本(GJ, 1892), S. J. Shereschewsky의 施約瑟淺文理譯本(SS, 1902), 和合本官話譯本(HH, 1919)을 저본으로, 성경 번역 과정에서 보이는 중국어 번역 성경의 문체와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 하신 “성령(聖靈)” 어휘의 유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아울러 우리 언어 전통에 없던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라는 어휘가 언제 어떻게 한글성경에 유입되어,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는지도 살펴보았다.

위의 고찰에 의하면, 19C 중국으로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인의 글말과 입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입말체에 기반을 둔 글말체로의 중국어 성경 번역이 필요함을 고심하였다.

서양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 과정과 전도 과정에서 중국인들과의 실제 생활을 통하여 문언체로 쓰여진 『代表本』이라고도 불리는 『委辦本譯本』과 같은 심문리체(深文理體) 중국어 성경은 학자층과 지식인들만이 보고 이해할 수 있었기에, 점차 너무 어렵지도 너무 속되지도 않은 쉬운 글말체 형식 즉 천문리체(淺文理體)로 교육받지 못한 백성들까지도 읽을 수 있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다. 이런 천문리체 성경에는 1886년 『楊格非淺文理譯本』과 1902년 『施約瑟淺文理譯本』 등이 있다.

1860년 북경조약이 체결된 후 중국이 전면개방을 하게 되자, 각 지방마다 방언의 차이가 있음을 알았던 선교사들은 중국 전역에 통용 가능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용이 가장 편리하고 계급 간 소통도 가장 효과적인 官話 성경 번역을 착수하였다. 대표적인 官話 성경으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Burdon, Edkins, Shereschewsky, Blodget, Martin 선교사가 『南

京官話譯本』을 참고하여 번역한 『北京官話譯本』(1872년)같은 것들이 있다. 이 성경은 현대중국어 입말과 가장 근접한 문체인 北京官話로 기록되어 당시 중국인들에게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중국어 성경은 초기 한글 성경 번역의 저본으로 사용되었기에, 한국어 성경 번역 역자들이 번역 과정 중, 중국어의 기록문자인 ‘한자(漢字)’를 한국어로 독음하는 가운데, 성령(聖靈), 성신(聖神), 십자가(十字架), 보혈(寶血), 구속(救贖), 속죄(贖罪), 구주(救主), 구세주(救世主), 세례(洗禮), 할례(割禮), 우슬초(牛膝草), 성도(聖徒), 성회(聖會), 율법(律法), 율례(律例), 도고(禱告), 기도(祈禱), 간구(懇求), 인자(人子), 칭의(稱義), 찬송(贊頌), 영생(永生), 복음(福音), 안식일(安息日), 유월절(逾越節), 화제(火祭), 소제(素祭), 번제(燔祭), 속죄제(贖罪祭), 속건제(贖愆祭), 만유(萬有), 보좌(寶座), 신원(伸冤) 등과 같은 중국어 성경의 어휘가 한국어 성경 속으로 상당 부분 많이 유입되어, ‘한국어 성경 속에서 한국인의 기독교 용어’로 뿌리 내려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중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성령(聖靈)”은 하나님, 예수님과 뿔뿔이 떨어져 있을 수 없는 三位一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요3:3),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3:5)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란 어휘는 위의 고찰에 의하면, 1863년 『裨治文·克陞存譯本(브리지만·컬버슨 역본)』중국어 성경에서 그 처음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와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이 각기 만주와 일본에서 번역된 후, 매서인과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으로 유입된 후, 한국 교계에서는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에 따라 “성령(聖靈)”이라는 교회 용어는 때론 “성령(聖靈)”으로, 때론 “성신(聖神)”으로 사용되어 진다.

그간 한국 학계에서는, 존 로스(John Ross)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이응찬(李應贊)등이 만주에서 번역한 한국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는 중국어 성경 『委辦本譯本(1854)』(『代表本』이라고도 함.)을 주된 저본으로 삼아 번역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고찰에 의하면 한국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전서』가 『委辦本譯本(1854)』(『代表本』이라고도 함.)을 주된 저본으로 삼았다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증거와 같은 “성령(聖靈)”이 “성신(聖神)”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Picture 1과 같이 “성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최초 한글로의 번역 과정에서 중국어 성경의 한자 “聖靈”이라는 어휘는 처음 한글성경 번역자들에 의해 우리말로 독음 되었고, 이후 토착화되어 어느덧 우리나라 말처럼 한국 기독교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교회 언어가 되었다.

최초 중국어 성경에서 한글로의 성경 번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민족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

어”(요 1:14) 그의 말씀을 우리말인 한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한없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은혜의 사건이라 하겠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1. 원전류 및 공구서

한중성경. 도서출판 모리슨.

[*Korean- Chinese Bible. Morrison* ]

『古新聖經殘稿』: 賀清泰, 中華書局, 2014.

[*Guxincangao- Chinese Bible. Louis Antoine de Poirot. Zhonghuashuju, 2014.*]

『馬禮遜、米怡譯本』 호주 시드니 Kenny Wang.

[*Morrison & Milne- Chinese Bible. Sydney Australia Kenny Wang.*]

『馬殊曼、拉撒譯本』 호주 시드니 Kenny Wang.

[*Joshua Marshman & Johannes Lassar- Chinese Bible. Sydney Australia Kenny Wang.*]

『郭實臘譯本』 호주 시드니 Kenny Wang.

[*Gützlaff - Chinese Bible. Sydney Australia Kenny Wang.*]

『委辦本譯本 (代表本)』 호주 시드니 Kenny Wang.

[*Delegates' Version- Chinese Bible. Sydney Australia Kenny Wang.*]

『南京官話譯本』 호주 국립도서관.

[*Nanjing- The Mandarin Chinese Bible. Australian National Library.*]

『裨治文、克陞存譯本』 호주 국립도서관.

[*Bridgman & Culbertson- The Classical Chinese Bible, Australian National Library.*]

『北京官話譯本』 臺灣 勞如麟 목사.

[*Beijing- The Mandarin Chinese Bible. Taiwan Laorulin Pastor.*]

『楊格非淺文理譯本』 호주 국립도서관

[*Griffith John-The Easy Classical Chinese Bible. Australian National Library.*]

『楊格非官話譯本』 台灣聖經公會

[*Griffith John-The Mandarin Chinese Bible. The Taiwan Bible Association.*]

『施約瑟淺文理譯本』 호주 국립도서관.

[*Schreschewsky- Chinese Bible. Australian National Library.*]

Ross, J. (1884). 『예수성교전서』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Ross, J. (1884). *The Book of the Church of Jesus*. Korean Bible Society collection.]

李樹廷 (1884). 『新約聖書使徒行傳』대한성서공회 소장본.

[Lee S. J. (1884). *New Testament Books of Acts*. Korean Bible Society.]

李樹廷 (1884).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대한성서공회 소장본.

[Lee S. J. (1884). *New Testament Maga Gospels*. Korean Bible Society.]

## 2. 단행본 및 논문

김애영·김현철·소은희·심소희 역 (2007). **현대한어**(現代漢語). 北京大學中文系編 (1993). 現代漢語. 서울: 차이나하우스.

[Kim, A. Y., Kim, H. C., So, E. H. & Sim, S. H. (2007). *Contemporary Chinese Language*. Seoul: China House. Trans. (Eds.). Beijing University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1993). 現代漢語. Beijing: 北京大學中文系編]

김찬미 (2019). **18-20세기 중국어 성경 8종 판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고찰-마가복음, 로마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Kim, C. M. (2018). *A Study on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8 Versions of the Chinese Bible in the 18th and 20th Century - Focusing on Mark and Romans*.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서수량 (2011), **존 로스(John Ross)의 선교사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사도 바울의 선교전략적 관점에서)**. 박사학위논문. 한국성서대학교.

[Seo, S. L. (2011), *A Historical Evaluation of Missionary Works of John Ross (From the Apostle Paul's Missionary Strategy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Korean Bible University, Seoul, Korea.]

이만열 (1993).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Lee, M. Y. (1993). *Korea Bible Society I*. Seoul: Korea Bible Society.]

이환진·전무용·서원석 (1987). 예수성교전서. **성서한국**, 33(1), 8-18. 서울: 대한성서공회.

[Lee, H. J., Jeon, M. Y. & Seo, W. S. (1887). Yesusyeong-gyojyeonseo, *The Bible Korea*, 33(1), 8-18. Seoul: The Korean Bible Society.]

히로다카시 (2005) **개화기 한국어 성서의 번역어 연구-「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Hiro Takashi (2005). *A Study Korean Bible's Words Translated in the Enlightenment Perio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蔡錦圖 (2018). 『聖經在中國』. 漢語基督教文化研究所, 香港: 道風書社.

[Cai J. T. (2018), *The Bible in China*, Institute of Chinese Christian Culture, Hongkong: Daofeng Book Club.]

『利瑪竇行旅中國記』(2010). 上海博物館編.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Matteo Ricci's *Travels in China* (2010). (Eds.). Shanghai Museum, Beijing: Beijing University Press.]

張利偉 (1994).『施約瑟及其《聖經》漢譯的原則和方法』. 南京: 南京大學.

[Zhang L. W. (1994). *Joseph Shi and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Chinese Translation of the Bible*. Nanjing: Nanjing University.]

# 19-20C초 중국어 12종 성경의 문체와 그 판본에 나타난 “성령(聖靈)” 어휘 유래 고찰

The study on the language style of the 12 Chinese Bibles and the origin of the word “Holy Spirit” in the early 19th -20th Century

소은희 (숙명여자대학교)

## 논문초록

본 논문은 19-20C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을 저본으로, 중국어 성경의 문체와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 하신 “성령(聖靈)” 어휘의 유래에 대해 고찰하였다.

아울러 우리 언어 전통에 없던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라는 어휘가 언제 어떻게 한글성경에 유입되어,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는지도 살펴보았다.

위의 고찰에 의하면, 기독교 용어 “성령(聖靈)”이란 어휘는 1863년 『裨治文、克陞存譯本(브리지만.컬버슨역본)』 중국어 성경에서 그 처음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최초의 한글성경인 『예수성교전서』와 『현토한한성경(懸吐漢韓聖經)』은 각기 만주와 일본에서 번역되었는데, 당시 한글성경 번역자들이 중국어 성경을 저본으로 삼았던 까닭에, 한자 “聖靈(성령)”이 처음 한글 번역자들에 의해 우리말로 독음 되었고, 이후 토착화되어 우리나라 말처럼 한국 기독교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어휘가 되었다.

주제어: 19-20C초, 중국어 성경 12종 판본의 문체, “성령(聖靈)” 어휘 유래